



Nobby's Head Lighthouse, Newcastle, Australia(2017. 6.20, 촬영 : 김학수 선장)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정해져있다. 육지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인 한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지구는 땅 30%와 바다 70%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 육지에서 맞닥뜨리는 허다한 문제들은 바다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구는 하나의 Eco system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일부다. 오랫동안 대륙지향적인 반도에서 살아왔던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가 필요한데, 그것은 한번 쯤 아니 반드시 바다로부터 바라보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전복! ‘바다로부터.’



광양 이순신대교(2017. 9.22, 촬영 : 김성희 기관장)

고래

기관보다 더 밑으로
사다리를 타고 밸러스트 탱크로 들어간다.
전장 305M의 척추와 갈비뼈 사이로 난 구멍
살덩이 속으로 파고든다.
바들바들, 바닥에 발을 딛으면,
철판 한 장 사이에 두고 바다와 마주한다.
가장 깊은 곳 뱃가죽 하나를 두고 재촉하는 물살을 듣는다.
둥둥 두드리는 수괴의 속삭임을.
가르고 지나는 고래의 창자 속에서 듣는다.
거칠게 신음하는 고래의 뱃속에서
요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SM Yantian호 실항사 허민혁 (2017.11.30)